

조선시대 농사는 크게 논농사와 밭농사로 나누어졌다. 논농사의 경우 기존의 방식 대신 이앙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, 제초를 할 때 드는 노동력이 크게 절약되었으며 곡식의 종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. 뿐만 아니라 벼의 수확을 끝낸 논에 보리를 심어 한차례 더 수확할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하였다. ㉠이**에 따라** ㉡**조선후기에는 농업이 발전된 전라 · 경상 · 충청도만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모두 이를 본받아 시행하게 되었다.** 하지만 이 농사법은 이앙을 해야 할 시기에 가뭄이 들면 이앙을 할 수 없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위험이 있었다. 따라서 국가에서는 수원(水源)이 근처에 있어 물을 댈 수 있는 곳은 이앙을 하게 했으나, ㉢**높고 건조한 곳은** 물을 충분히 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 이앙하도록 지도했다. 만약 물을 댈 수 없는 곳인데 비가 올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고 이앙하려고 하다가 농사를 망칠 경우에는 ㉣**흉년 시 농민들에게 주던 혜택인 세금 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하였다.**

밭농사에서의 전통적인 농사법은 농종법(壟種法)이었다. 이는 밭두둑 위에 종자를 심는 것이었는데, ㉤**햇빛에 노출되어 습기가 쉽게 말라 가뭄이 들면 종자가 발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.** ㉥**이에** 조선후기에 들어와 농민들은 새로운 농사법을 다투어 채용하였다. 견종법(畝種法)이라 불린 이 농법은 밭두둑에 일정하게 고랑을 내고 여기에 종자를 심는 것이었다. 고랑에 종자를 심었으므로 흙이 우묵하게 그늘이 저서 습기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, 따라서 종자가 싹틀 확률이 높은 것이 첫 번째 장점이었다. 또한 고랑을 따라 곡식이 자랐기 때문에, 곡식과 잡초가 구획되어 잡초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. 자연히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었다. 세 번째 장점은 고랑에만 씨를 심었으므로 농종법에 비해 종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. 네 번째로, 종자를 심는 고랑에만 거름을 주면 되므로 거름을 절약할 수 있고 모든 뿌리가 거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. 자연히 기존 방식에 비해 수확량이 증대되었다. 마지막으로 ㉦**곡물의 뿌리가 깊**
이 내려 바람과 가뭄에 잘 견디는 것도 이 농법의 장점이었다.

1. ㉠의 의미를 서술하세요.

이앙법이 기존의 논농사 방식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 따라

2. ㉡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세요.

조선후기 이전에도 농업이 발달했던 전라 · 경상 · 충청도에서는 이앙법을 통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.

3. ㉢의 실질적인 의미를 서술하세요.

높은 곳에 위치하고 습도가 낮아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곳

4. ㉤의 이유를 서술하세요.

이앙법은 이앙을 해야 할 시기에 가뭄이 들면 농사를 망친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.

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고 건조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곳은 물을 충분히 댈 수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양하도록 지도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도를 어기고 이양을 했다가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망치는 피해를 입은 경우, 피해의 책임은 해당 농민에게 있다고 판단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.

5. ㉔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세요.

발농사를 지을 때 종자가 발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습도가 필수적이다.

6. ㉕의 의미를 서술하세요.

기존의 발농사 방법인 농종법이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

7. ㉖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세요.

곡물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해당 곡물이 바람이나 가뭄에 잘 견디지 못한다.